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경이야기

여러분, 혹시 약속을 깜빡 잊어버려서 혼난 적 있나요? 숙제를 잊어버리거나 준비물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곤란해지고 속상해져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 주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기쁨과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지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괴로워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 구해 주셨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사와 함께하시며 다시 평안을 주셨어요.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어요. 죄 → 고통 → 부르짖음 → 구원의 반복이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편찮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예배보다 게임이 더 중요해지고, 기도보다 다른 일이 더 바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요. 하나님을 잊으면 자꾸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선택해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어린이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말씀 읽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천국은 마치 다 같이

말씀봉독 사사기 2:11~23절 다 같이

설교 잊어버리면 넘어져요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섬겼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2. 나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가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